‘펜트하우스3’ 첫 방부터 시청률 19.5%…무엇이 달라졌나





SBS ‘펜트하우스’ 시즌3이 4일 첫 방송한 가운데 19.5%(닐슨코리아)로 시리즈 1회의 시청률 기록을 다시 썼다. 사진은 유진을 비롯해 신은경·윤주희·김소연 그리고 박호산(왼쪽 사진부터) 등 개성 강한 주역들의 극중 활약상을 담은 장면이다. 사진제공 | SBS

매운 맛 추가…첫회부터 반전과 배신

신출귀몰 엄기준·이지아 복수 흥미
뉴페이스 박호산·온주완 역할 관심
완성도 높여 주 회당 90분 12주 방영

“역시 완결편의 힘!”

SBS ‘펜트하우스’가 더욱 강력해져 돌아왔다. 4일부터 시즌3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드라마는 극중 최고 악역인 엄기준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출소하고, 그의 전 아내인 이지아가 복수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숨 막히게 펼쳐내며 1회 만에 19.5%(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 시즌의 1회(19.1%) 수치를 가뿐히 제친 시즌3의 ‘시청률 신기록’ 작성 여부에도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얼굴’ 박호산·온주완의 활약

시즌3에서는 새롭게 투입된 박호산과 온주완이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각각 전 시즌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진지희의 아빠, 엄기준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은 백준기를 연기하고 있다. 저마다 수상한 행동으로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배경도 확 바뀌었다. 시즌 1·2 속 휘황찬란한 상류층의 일상이 펼쳐졌던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에서 좁고 투박한 교도소가 인물들의 새로운 공간이 됐다. 헤라팰리스에 살던 신은경·봉태규·윤종훈·윤주희 등이 제각각 수감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으로도 코믹함을 더했다. 이 가운데 김소연이 석방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정신착란 연기를 선보이는 장면이 ‘압권’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온라인상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 1회 방영…“완성도 높인다”

시즌1·2와 달라진 것은 또 있다. ‘러브라인’의 지각변동이다. 대학 입시를 앞둔 청아예고 학생들의 기 싸움부터, 권력구도가 재편되면서 벌어지는 어른들의 암투까지 인물간의 관계 변화가 시즌3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청아 키즈’의 대표 커플인 김현수와 김영대는 “한 번의 이별을 딛고 다시 만난 만큼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시련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앞선 시즌에서 엄기준의 손에 로맨스 상대역인 박은석을 잃은 이지아도 날선 복수를 예고했다. 그는 “전보다 ‘매운 맛’을 더욱 추가했다”며 “시청자의 예측을 모두 빗나간 전개로 더 큰 배신감(?)을 안길 것”이라며 ‘파격’을 자신했다.

금토드라마에서 금요드라마로 편성 자체가 바뀐 점도 눈길을 끈다. SBS는 시즌3을 주 1회 방영해 12주 동안 방송할 예정이다. 대신 종전의 회당 70분에서 20분가량을 늘린 90분 분량으로 선보인다. 제작진은 금토드라마로 방영할 때보다 더 많은 제작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시청자 사이에서는 몰입감이 높아졌다며 오히려 이전 시즌보다 더 낫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서머 퀸은 누구? 트와이스·브레이브걸스·이달의 소녀 컴백

트와이스 11일 미니앨범 ‘테이스트…’
역주행 브레이브걸스 17일 신곡 선봬
이달의소녀는 28일 네번째 미니음반

올해 여름 더위를 식혀낼 가요계 ‘서머 퀸’은 누구일까.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가요계가 발 빠르게 ‘서머 퀸’ 쟁탈전에 돌입했다.

케이팝 대표 걸그룹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트와이스부터 올해 상반기 가요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브레이브걸스, 그리고 신흥 대세로 떠오른 이달의 소녀가 나란히 컴백해 여름시장을 공략한다. 그룹마다 색깔과 특색이 다른 만큼 이들이 선보이는 대결 구도에 올해 여름 가요계는 더욱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2015년 데뷔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흥행 기록을 써 내려온 트와이스는 11일 오후 1시 열 번째 미니음반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9일 타이틀곡 ‘알콜 프리’(Alcohol-Free)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선 공개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로 작사, 작곡, 편곡까지 맡은 박진영은 이번 곡에 “한 여름날의 음악 축제 같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매년 여름시즌마다 ‘시그널’ ‘댄스 오브 더 나이트 어웨이’ ‘모어 앤 드 모어’ 등 신나는 댄스곡을 선보여 왔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여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앨범으로 국내외 시장을 겨누고 있다. 최근 다채로운 색감의 과일과 칵테일, 시원한 바닷가를 연상케 하는 티저 이미지와 멤버별 사진을 공개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트와이스는 “우리만의 톡톡 튀는 매력과 청량한 여름 분위기로 연타석 흥행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올해 초 차트 ‘역주행 신화’를 쓴 브레이브걸스의 신곡도 관심을 끈다. 여름 분위기 물씬한 곡으로 “2021년 서머 퀸” 자리를 미리 예약한 이들은 17일 컴백한다.

최근 소속사 대표이자 인기 프로듀서인 용감한형제가 자신의 SNS를 통해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해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사진 속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이 시원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모래사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글로벌 신흥 대세’로 떠오른 이달의소녀(LOONA)도 28일 네 번째 미니음반 ‘앤드(&)’로 돌아온다. 데뷔부터 ‘루나버스’(LOONAverse)라 불리는 독특한 설정의 콘셉트로 국내외를 사로잡은 이들은 그 속에 녹아 있는 ‘당당한 소녀와 주체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또 한번 팬덤을 확장해나갈 기세다. 현재 틈틈이 공개 중인 티저 이미지로 자신들의 콘셉트와 어울리는 컬러감을 내세워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와이스


브레이브걸스


이달의 소녀

배우 라미란×래퍼 미란이, 이색 콜라보 신박하네

신곡 ‘라미란이’ 음원 차트 상위권
뮤직비디오 4일 만에 123만뷰 넘겨

배우 라미란(46)과 래퍼 미란이(김윤진·25)가 세대와 영역을 뛰어넘은 이색 협업으로 시선을 모은다. 프로젝트 듀오 라미란이로 손잡고 1일 신곡 ‘라미란이’를 선보이며 본격 활동에 나섰다.

두 사람의 조합은 벌써부터 음원 차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6일 오후 현재 음원사이트 멜론의 ‘1주 내 발매곡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다. 레드벨벳 조이·마마무 등 음원강자들 사이에서 이룬 성과다. 콘텐츠 제작사 ‘컨텐츠랩 비보’의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선보인 뮤직비디오도 공개 4일 만인 이날 123만뷰를 넘겼다. 라미란이 미란이로부터 랩을 배우고 함께 호흡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래퍼 미란이(왼쪽)와 배우 라미란

이들은 ‘컨텐츠랩 비보’를 이끄는 방송인 송은이가 “두 ‘미란이’가 만나면 재미있겠다”며 내놓은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5개월여 준비 끝에 세상에 나왔다. ‘남들이 뭐라 하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을 중독성 강한 힙합 비트에 얹었다. 랩에 처음 도전한 라미란은 “가짜가 아닌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지로 미란이와 함께 가사를 썼다.

두 사람은 각종 유튜브 콘텐츠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프로모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네이버나우 ‘2021 잘잘잘’ 등을 통해 음원 제작 뒷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들의 색다른 시도에 주변의 응원도 쏟아진다. 배우 유아인은 “라미란이 사랑한다”며 SNS에 응원글을 올렸고, 라미란과 친분이 깊은 개그우먼 김숙은 ‘옥탑방의 문제아들’ 출연 성사에 힘을 보탰다.

유지혜 기자

‘분노의 질주’ 누적관객 200만 애니 ‘소울’보다 세배 빠른 속도

영화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가 쾌속으로 흥행 질주하고 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누적 200만 관객을 넘어섰고, 또 다른 작품들의 잇단 선전과 함께 여름시즌을 앞둔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6일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분노의 질주)의 배급사 유니버설 픽쳐스는 “개봉 19일째인 이날 오전 전국 누적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박스오피스 전체 흥행 추이 속 최단기간 200만 관객 동원 기록이다. 올해 애니메이션 ‘소울’이 1월20일 개봉해 54일째에 200만 관객을 넘어선 것보다 세 배나 빠른 속도이다.

이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분노의 질주’는 토요일인 5일 7만3000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6일 현재까지 누적 관객은 208만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평일 평균 2만8000여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분노의 질주’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209만명)과 ‘소울’(204만명)을 제치고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무난히 오를 전망이다. 특히 2017년 ‘분노의 질주:더 익스트림’과 2019년 ‘분노의 질주:홉스&쇼’가 300만여 관객수를 기록한 점에 비춰 극장가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포영화 인기 시리즈 ‘컨저링’의 세 번째 작품 ‘컨저링3:악마가 시켰다’(23만여명)와 또 다른 블록버스터 ‘크루엘라’(56만7000여명)의 선전도 본격적인 성수기인 여름시즌을 앞둔 극장가에도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영화 기대작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영화계와 극장가는 내다보고 있다. 호쾌한 차량 액션이 몰고 온 오랜만의 극장가 활기가 ‘볼 만한 콘텐츠가 있다면 관객은 극장을 찾는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시각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BTS 지민 팬들, 팔레스타인 청소년 돕기 나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팬들이 팔레스타인 청소년 돕기에 나섰다. 지민의 팬들은 최근 SNS를 통해 ‘팔레스타인 아동구호기금(Palestine Children´s Relief Fund, PCRF)과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중순부터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로 가자지구의 50여 어린이 등 2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해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에 힘을 모았다. 이들은 앞서 미얀마와 예멘 등 분쟁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 밀반입 혐의’ 보아 불기소


보아

향정신성 의약품 밀반입 혐의를 받은 가수 보아(권보아·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당사 직원이 보아의 일본 활동 당시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몰라 의약품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보아는 소속사의 일본 지사를 통해 졸피뎀 등 일부 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SM은 “보아와 직원은 의사 처방과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 절차 확인 관련 미흡 등과 관련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했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가수 벤, 이욱 W재단 이사장과 결혼

가수 벤(30)과 이욱(33) W재단 이사장이 5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친지만 초대한 간략한 예식을 올렸다. 2019년 9월 교제 중임을 공개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결혼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결혼 일정을 연기해오다 이날 결혼식을 올렸다. 벤은 2010년 3인조 그룹 베베미뇽의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2012년 솔로로 무대에 나서 ‘열애중’, ‘헤어져줘서 고마워’ 등 인기곡을 내놓았다. 이욱 이사장은 긴급구호 재단법인 W재단을 이끌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